리 만

휘어진 세계를 사랑한 사람

제 1 부

목사관의 아이

1826~1842

1화 ~ 50화

차 례

1화 무화과나무 아래
2화 둘째
3화 단추 열두 개
4화 또 해 주세요
5화 지워진 나라
6화 콜레라가 온다
7화 배 속의 군대
8화 세 시간 거리
9화 1833년 5월 8일
10화 염소 유클리드
11화 맨 앞줄
12화 어려운 문제를 내는 아이
13화 빌헬름의 장사
14화 촌장 바르텔스
15화 말 한 말의 크기
16화 이다의 장부
17화 자로 두 번 재면
18화 말하지 못하는 아이
19화 옳다는 것만으로는
20화 여관의 교구 회의
21화 센나차
22화 고백
23화 두 개의 말
24화 오르간 파이프를 세는 벌
25화 아홉 살의 선생님
26화 점은 부분이 없다
27화 더 빠르고 더 나은
28화 등잔 기름값
29화 손이 따라 주지 않는다
30화 따라가는 선생
31화 왕이 바뀌었다
32화 지워진 단어
33화 괴팅겐의 일곱 사람
34화 설교단의 한 문장
35화 쪼갤 수 없는 것
36화 하나님 앞의 셈
37화 놋바다의 둘레
38화 막내 마리
39화 구구단 가락
40화 열세 살 반
41화 칠 분
42화 테르티아
43화 왕의 행렬
44화 낭독회의 차
45화 끝까지
46화 편지로 내는 문제
47화 멈추는 시계
48화 우는 아버지
49화 아들의 청
50화 요하네움의 문
작가의 말

1화

무화과나무 아래

1866년 7월 19일. 마조레 호수, 셀라스카.

호수는 아침부터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밀려오고, 부서지고, 물러나고, 다시 밀려왔다.

베른하르트 리만은 무화과나무 그늘에 누워 그 일을 세고 있었다.

배 위에는 원고 묶음이 있었다. 연필은 손가락 사이에 있었다. 연필이 종이에 닿는 횟수보다 물결이 기슭에 닿는 횟수가 훨씬 많았다.

서른다섯, 서른여섯.

기침이 나왔다.

리만은 기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셈을 이었다. 서른일곱. 기침 때문에 놓친 물결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놓친 것을 셈에 넣지 않기로 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모른다고 적는 편이 낫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또 세고 있죠."

그늘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제가 대야에 물을 담아 들고 서 있었다. 물은 마시라는 것이었고, 대야는 얼굴을 닦으라는 것이었고, 그 둘을 한꺼번에 들고 온 것은 두 번 걸음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안 세고 있었어."

"입술이 움직였어요."

"기도하고 있었지."

"서른일곱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리만은 반박하려다 그만두었다. 대개 그랬다. 말을 반쯤만 꺼내 놓고, 나머지 반은 머릿속에서 끝까지 해 버렸다. 머릿속의 리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른일곱 번째 물결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주 꼼꼼한 사람일 것이다.' 입 밖의 리만은 웃기만 했다.

엘리제는 그 웃음을 보고 대야를 내려놓았다. 결혼한 지 사 년이 지나자 그녀는 이 사람의 웃음을 번역할 수 있게 되었다. 입꼬리만 올라가면 '당신 말이 맞지만 내 말도 맞다'는 뜻이었다. 눈까지 웃으면 '당신이 이겼다'는 뜻이었다.

오늘은 입꼬리만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누워 있으라고 했어요."

"누워 있어."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물결을 세고 있었지."

"방금은 안 세고 있었다면서요."

리만은 패배를 인정하는 뜻으로 연필을 내려놓았다. 연필은 내려놓았지만 원고는 배 위에 그대로 두었다. 엘리제는 그것까지 빼앗지는 않았다. 사 년 동안 그녀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이 사람에게서 종이를 빼앗는 것은 숨을 빼앗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이었다.

물을 마시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두 모금마다 숨을 골랐다. 엘리제는 그가 잔을 돌려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수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무화과나무 잎을 뒤집었다. 넓은 잎들이 손바닥처럼 뒤집혔다가 다시 엎드렸다.

"아빠!"

집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다.

이다였다. 두 돌을 반년 넘긴 아이는 달리는 것과 넘어지는 것의 차이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엘리제가 팔을 뻗기 전에 아이는 이미 리만의

무릎에 도착해 있었다. 원고 몇 장이 풀밭으로 미끄러졌다.

리만은 종이를 줍지 않았다. 아이를 안았다.

엘리제는 그 순서를 기억해 두기로 했다.

"아빠, 뭐 해?"

"세고 있었어."

"뭐?"

"물결."

이다는 호수를 보았다. 호수는 어린아이의 눈에 너무 컸고, 물결은 너무 작았다. 아이는 세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세기 쉬운 것을 찾았다. 자기 손가락이었다.

"하나, 둘, 다섯."

엘리제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이 사람은 틀린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학생의 틀린 증명에는 새벽까지 편지를 썼고, 신문의 틀린 날짜에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딸의 '하나, 둘, 다섯'을 듣고 있었다.

리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섯이구나."

"당신……."

"틀린 게 아니야." 리만은 아이의 작은 손을 펼쳐 보였다. "봐. 손가락이 다섯 개지. 이 아이는 셈을 한 게 아니라 결론을 말한 거야. 중간을 건너뛴 것뿐이지."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약이라고 하는 거야."

리만은 진지했다. 엘리제는 어이가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이 사람의 일생이 그랬다는 것을 떠올렸다. 괴팅겐 사람들은 그의 논문을 읽고 중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중간을 건너뛰고 결론에 먼저 가 있었고, 사람들은

뒤에서 그 사이를 메우느라 몇 년씩 걸렸다. 누군가는 그것을 천재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것을 무책임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것을 그냥 베른하르트라고 불렀다.

괴팅겐을 떠나올 때 그녀는 혼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다. 남편이 결론만 말하거든 중간을 묻지 않겠다는 것. 물어보면 그는 기뻐하며 대답할 것이고, 대답은 사흘이 걸릴 것이었다. 사흘이면 그의 숨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녀는 중간을 묻지 않는 쪽을 골랐다. 그것이 그녀가 해 본 가장 어려운 계산이었다.

"하나, 둘, 다섯." 이다가 자랑스럽게 다시 말했다.

"잘했다."

"엄마도 해."

엘리제는 한숨을 쉬고 풀밭에 무릎을 꿇었다. 미끄러진 원고를 주워 모으는 척하면서 딸의 손가락을 하나씩 짚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마는 느려."

리만이 웃었다. 이번에는 눈까지 웃었다. 그러다 웃음이 기침으로 바뀌었고, 기침은 오래 갔다. 이다는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들었다. 무서워하지는 않았다. 아이에게 그것은 아버지가 내는 여러 소리 중 하나였다. 엘리제에게는 아니었다.

그녀는 원고를 추리며 기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떨리는 손을 종이로 가렸다. 종이에는 그녀가 읽을 수 없는 기호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그녀가 읽을 수 있는 독일어 한 줄이 있었다.

'아직 모른다.'

그 말 옆에 능선이 하나 그려져 있었다. 물결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엘리제는 그 한 줄을 오래 보았다. 결혼하고 나서 그녀가 남편의 원고에서 읽을 수 있었던 말은 대개 그런 것이었다. '아직 모른다.' '다시 볼 것.' '여기는 나중에.' 기호는 읽지 못해도 그 짧은 말들은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남편이 쓰는 가장 정직한 문장이라는 것도 알았다.

기침이 멎었다.

"미안해." 리만이 말했다.

"뭐가요."

"웃기는 것도 이제 계산하고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엘리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대야의 물에 손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를 닦았다. 물은 호수만큼 차갑지 않았다. 여름 내내 그녀는 물을 호수보다 조금 덜 차갑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너무 차가우면 그가 몸을 움츠렸고, 몸을 움츠리면 기침이 나왔다. 그것도 일종의 계산이었다. 그녀는 수학자와 사 년을 살며 수학을 한 줄도 배우지 않았지만, 계산은 많이 배웠다.

무화과나무에는 그 주에 첫 열매가 익었다. 엘리제는 아침에 딴 것 하나를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내 반으로 갈랐다. 붉은 속에 작은 씨가 빽빽했다.

"이건 세지 마요."

"안 세."

리만은 반쪽을 받아 들고 씨가 박힌 줄을 눈으로 따라갔다. 씨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셀 수 없다는 말은 그에게 언제나 조금 무례하게 들렸다. 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끝까지 세어 보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무례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는 씨를 세지 않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단맛이 목을 지나가는 동안 기침은 기다려 주었다.

"어때요."

"서리를 안 맞았는데도 달아."

엘리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북쪽 사람들끼리만 아는 이야기였다. 겨울 밭의 푸른 잎은 서리를 맞아야 단맛이 든다는 것.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려면 엘베 강 옆 작은 마을의 부엌까지, 교회지기 아내의 솥까지 가야 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갈 숨이 없었다.

이다가 남은 반쪽을 가져가 씨만 골라 먹으려다 그만두었다. 아이는 그것을 엄마의 손바닥에 돌려주며 엄숙하게 말했다. "너무 많아." 리만은 딸이 처음으로 무한과 협상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졌다. 지는 모습이 아주 훌륭했다.

"베른하르트."

"응."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하나만 묻는 사람은 없어. 다들 하나라고 하고 셋을 물어."

"그럼 셋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

엘리제는 웃었다. 그러고 물었다.

"당신이 제일 처음에 센 건 뭐였어요?"

리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호수가 밀려왔다. 부서졌다. 물러났다.

그는 오랫동안 물결을 보고 있었다. 그 눈이 호수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엘리제는 알았다. 호수보다 훨씬 먼 데, 알프스를 넘고 엘베 강을 건너, 하노버라는 이름이 아직 있던 어느 가난한 목사관 쪽을 보고 있었다.

그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소식은 일주일 전에 이미 호수까지 와 있었다.

"까먹었어." 리만이 마침내 말했다.

"거짓말."

"응. 거짓말이야."

그가 이다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어느새 아버지 배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다섯 개의 손가락이 그의 셔츠 자락을 쥐고 있었다.

"사실은 기억나. 너무 잘 기억나서, 말하면 다 새어 나갈 것 같아."

"새어 나가면 어때요. 제가 받을게요."

리만은 아내를 보았다. 그 눈빛을 엘리제는 번역하지 못했다. 사 년 동안 처음 보는 눈이었다.

"그럼 이것부터 받아."

그가 눈을 감았다. 무화과나무 잎이 다시 뒤집혔다.

"목사관이었어. 엘베 강 옆에서 세 시간쯤 떨어진 작은 마을. 아버지가 설교를 하고, 어머니가 빵을 나누고, 누나가 나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던 집."

"그리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서랍에……."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세고 있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엘리제는 이번에도 알 수 없었다.

하나, 둘…….

*

1826년 9월. 하노버 왕국, 브레젤렌츠.

목사관에서 아기가 울었다.

2화

둘째

프리드리히 베른하르트 리만 목사는 문 앞에서 서 있는 법을 알았다.

해방전쟁 때 발모덴 군단의 중위로 배운 것이었다. 명령이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숨을 고르게 쉰다. 문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문제는 문 너머의 산파가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목사님! 물! 뜨거운 물 더!"

"얼마나 더입니까."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가 어딜 있어요!"

문이 쾅 닫혔다. 프리드리히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웠다. 가득이라는 말에는 수량이 없었지만, 주전자에는 크기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군대에서도 모든 명령에 수량이 붙어 있지는 않았다.

1826년 9월 17일. 하노버 왕국, 단넨베르크 근처의 브레젤렌츠.

엘베 강에서 올라온 안개가 교회 첨탑을 반쯤 지우고 있었다. 마을은 작았고, 교구는 가난했고, 목사관의 창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제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덜컹거렸다.

주전자를 문 앞에 내려놓았을 때, 발치에서 무언가가 그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이다였다.

맏딸은 아직 말이 서툴렀다. 그러나 서툴다는 것과 과묵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내 거."

"무엇이 네 것이냐."

이다는 문을 가리켰다.

"저 안에 있는 거. 내 거."

프리드리히는 딸을 내려다보았다. 군대에서도 이런 병사는 있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마을을 이미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병사. 그런 병사는 대개 오래 살아남았다. 자기 것을 지키려면 살아있어야 하니까.

"아직 모른다. 남동생일지 여동생일지."

"상관없어. 내 거."

그때 문 너머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가늘고, 느리고, 무언가에 항의하는 것 같은 울음이었다.

프리드리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쥐었다. 펼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문이 열렸다. 산파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나왔다.

"아들입니다. 부인도 무사하세요. 다만……."

"다만."

"아기가 좀 작아요. 그리고 우는 게 좀…… 조심스럽네요."

"우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산파는 목사를 한참 올려다보았다. 이 마을에서 아기를 수백 명 받아본 여자였다. 아기가 나오면 아버지들은 보통 울거나, 웃거나, 술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듣는 장교처럼 물어보는 아버지는 그 수백 명 가운데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울긴 우는데 세상이 얼마나 큰지 먼저 재보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프리드리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을 살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산파는 그 대답을 두고두고 마을에 퍼뜨렸다. 브레젤렌츠의 목사는 아들이 태어난 날 '상황을 살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고. 사람들은 웃었고, 웃다가 조금 감동했다. 목사가 우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우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

샤를로테는 베개에 기대 앉아 있었다.

하노버 궁정고문관 에벨의 딸. 그녀는 도시의 예절을 배우며 자랐고, 시골 목사의 아내가 되면서 그 예절을 하나씩 부엌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손님에게 차를 내는 예절은 차잎을 아끼는 기술이 되었고, 식탁의 예절은 빵을 고르게 자르는 기술이 되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부끄럽게 여길 여유가 없었다.

프리드리히가 들어오자 그녀가 물었다.

"보고하세요, 중위님."

부부 사이의 오래된 농담이었다. 프리드리히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손을 잡고,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작았다. 정말 작았다. 이다보다 작았고, 그가 전장에서 본 어떤 부상병보다도 연약해 보였다. 주름진 얼굴이 찡그리고 있었다. 울음은 멈췄지만 눈은 뜨고 있었다.

그 눈이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니, 천장의 들보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다음 들보로, 또 다음 들보로.

프리드리히는 그 눈길을 따라가다 멈췄다. 들보는 일곱 개였다. 그가 이 방에서 삼 년을 자면서 한 번도 세어보지 않은 숫자였다.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거짓말. 당신은 아무 생각 안 할 때 눈썹을 안 움직여요."

프리드리히는 패배를 인정했다.

“이 아이가 들보를 보고 있었소.”

“갓 난 아이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럴 것이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들보를 보았다. 일곱 개. 샤를로테는 남편의 옆얼굴을 보며 빙긋 웃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에 빠진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이다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다. 사흘 동안 이다의 요람을 고치다가 사흘째 되는 날 밤에야 ‘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얼굴을 했다.

문이 살짝 열렸다. 이다가 기어 들어왔다.

“내 거 볼래.”

“이리 오렴. 조심해서.”

이다는 침대에 매달려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한참을 보더니 실망한 얼굴이 되었다.

“쪼그맣네.”

“네 것이라며.”

“쪼그매도 내 거.”

이다는 손가락 하나로 아기의 손바닥을 콕 눌렀다. 아기의 손이 오므라져 그 손가락을 잡았다. 이다의 얼굴에 공포와 기쁨이 동시에 지나갔다.

“엄마! 잡았어! 나 잡았어!”

“그래. 이제 네가 누나야.”

“누나가 뭐야?”

“평생 잡혀 있는 사람이지.”

샤를로테는 웃으며 말했지만, 이다는 그 말을 진지하게 알아들었다. 그리고 사십 년 뒤까지 한 번도 그 정의를 바꾸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산파가 목사의 대접을 기다리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는 몰랐다. 그는 찬장에서 볶은 보리를 찾아 주전자에 넣었다. 커피 대신 마시는 것이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군대식으로 판단했다. 많으면 남기면 되고, 모자라면 싸울 수 없다.

산파는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목사님. 이건 보리차가 아니라 보리죽이에요."

"먹을 수는 있습니까."

"먹을 수는 있죠."

"그럼 됐습니다."

산파는 그 잔을 끝까지 비웠다. 아기를 수백 명 받는 동안 그녀가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아기가 태어난 날 아버지가 내놓는 것은 무엇이든 마셔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다는 식탁 밑에서 그 잔을 올려다보다가 자기도 달라고 했다. 프리드리히는 잔 바닥에 남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서 딸의 입에 넣어 주었다. 이다는 얼굴을 찡그렸다가, 동생 몫까지 달라고 했다.

"아기는 아직 못 먹는다."

"그럼 내가 대신 먹을게. 내 거니까."

동생 몫은 누나가 먹는다. 이다의 그 규칙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 몫은 누나가 챙긴다는 규칙은 평생 갔다.

*

그날 밤 프리드리히는 서재에서 교회 장부를 펼쳤다.

세례 장부는 두꺼웠다. 브레젤렌츠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이 몇 대에 걸쳐 적혀 있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사흘 뒤의 날짜가 한 번 더 적혀 있었다. 그는 그런 줄을 볼 때마다 잠시 멈췄다가 넘겼다.

펜을 들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베른하르트.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고, 왕의 이름을 넣었고, 가장 끝에 불릴 이름을 넣었다. 베른하르트. 불릴 이름이 가장 뒤에 있는 것이 그는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한 것은, 그것이 아무에게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날짜를 적고, 부모를 적고, 목사의 서명을 했다. 자기 아들의 세례 장부에 목사로 서명하는 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묘한 일이었다. 한 사람의 손이 두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장부를 펼쳤다.

얇은 장부였다. 목사관의 살림 장부. 샤를로테가 쓰다가 출산이 가까워지자 그에게 넘긴 것이었다. 교구에서 들어온 계란, 우유, 감자, 곡물. 나간 것은 빵, 기름, 양초, 산파에게 줄 것.

그는 산파에게 줄 것을 적었다. 그러고 합계를 내었다.

모자랐다.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크게 모자라지 않는 것이 항상 모자랐다. 두 아이는 이제 입이 둘이었다. 입은 셈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울 뿐이다.

프리드리히는 펜을 든 채로 오래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펜촉에 맺힌 잉크 한 방울이 장부 위에 떨어져 작은 원을 만들었다. 원은 천천히 번졌다. 모자란 숫자의 일부를 덮었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대신 펜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다. 저녁 기도는 늘 같은 순서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독일어로는 같은 말이었다. Schuld. 죄이자 빚. 어릴 때는 그 말이 두 가지 뜻이라는 것이 불편했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사람은 갚을 수 없는 것을 지고 산다. 그런데도 산다. 누군가 장부를 덮어주기 때문에.

기도를 마친 뒤 그는 다시 세례 장부를 펼쳤다. 먹이 마른 아들의 이름을 한 번 더 읽었다.

베른하르트.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서재에서, 해방전쟁의 중위였던 목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상황을 살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대답은 없었다. 아기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다만, 너무 오래 살피지는 마라. 살피는 사이에도 세상은 간다."

그는 장부를 덮었다.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다음 날 아침, 이다는 아기 요람 옆에 앉아 동생에게 자기 수프를 숟가락째 나눠 주려 했고, 어머니에게 혼났다.

아기는 여전히 들보를 보고 있었다.

3화

단추 열두 개

목사관에는 열면 안 되는 서랍이 세 개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서랍이었다. 바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아버지의 설교 서랍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하나는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이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금지는 네 살 아이에게 초대장과 같았다.

1830년 가을, 브레젤렌츠.

아버지는 교인의 장례에 갔고, 어머니는 아기 빌헬름을 재우고 있었고, 이다는 부엌에서 감자 껍질을 세고 있었다. 이다는 껍질이 몇 개인지 궁금해서 센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껍질을 얼마나 두껍게 벗겼는지 보자'고 했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집에서는 껍질도 장부에 오른다.

베른하르트는 서재에 혼자 있었다.

서재는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는데, 가장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책이 벽 두 면을 덮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잉크병과 모래통과 깎다 만 깃펜 세 자루가 있었다. 창으로는 교회 지붕의 십자가가 보였다.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등지고 앉아 설교를 썼다. 아이는 그게 늘 궁금했다.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이 왜 하나님 쪽을 등지고 앉는 걸까.

서랍은 열려 있었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그것은 초대장이 아니라 명령서였다.

*

서랍 안에는 접힌 천이 있었다. 두꺼운 모직이었고, 오래된 냄새가 났다. 연기와 기름과 무언가 쓴 냄새. 그 위에 작은 양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흔들자 소리가 났다. 단단하고 작은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다.

단추였다.

똑같이 생긴 단추들이 차례로 손바닥에 쏟아졌다. 사자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한 문양이 돋을새겨져 있었다. 아이는 단추를 서재 바닥에 일렬로 놓았다.

하나, 둘, 셋.

열두 개였다.

아이는 만족했다. 열둘은 좋은 숫자였다. 교회에서 들은 사도의 수였고, 어머니가 계란을 사는 단위였고, 아버지 시계의 숫자도 열두 개였다. 세상의 중요한 것들은 열두 개씩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일렬로 놓인 단추는 너무 길었다. 서재 바닥을 가로질러 책상 다리에 부딪혔다. 아이는 단추를 두 줄로 다시 놓았다.

여섯, 여섯.

반듯한 직사각형이 되었다. 군인들이 두 줄로 선 것 같았다. 아이는 세 줄로 놓아 보았다. 넷, 넷, 넷. 더 반듯했다. 네 줄로 놓아 보았다. 셋, 셋, 셋, 셋. 이번에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었다. 다섯 줄은 되지 않았다. 두 개가 남아 어색하게 서 있었다.

네 살배기는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몰랐다. 다만 열둘이 여러 모양으로 줄을 설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을 알았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여섯 줄. 그리고 열두 줄. 아이는 한 줄에 하나씩 열두 줄로도 놓아 보았다. 그것은 일렬과 같은 모양이었다. 방향만 달랐다. 아이는 그게 우스웠다. 같은 것이 돌아서면 다른 이름을 갖는다.

그때 단추 하나가 굴러갔다.

아이의 무릎에 밀려 실수로 튕겨나간 것이었다. 단추는 생각보다 멀리 굴러가 침대 밑으로 사라졌다. 아이는 엎드려 손을 넣었지만 닿지 않았다.

열한 개가 남았다.

아이는 열한 개를 두 줄로 놓아 보았다. 하나가 남았다. 세 줄로 놓아 보았다. 두 개가 남았다. 네 줄. 세 개. 다섯 줄. 하나. 아이는 점점 다급해져서 단추를 이리저리 옮겼다. 어떻게 놓아도 한 개씩, 두 개씩 어색하게 남았다. 남는 단추들은 군대에서 버려진 병사들처럼 보였다.

반듯한 직사각형은 한 줄로 설 때뿐이었다. 두 줄도, 세 줄도 없이. 열한 개는 혼자 길게 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아이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고작 하나를 잃었을 뿐인데, 열둘은 그렇게 많은 모양이 될 수 있었는데, 열하나는 단 하나뿐이었다.

"너 뭐 해?"

문가에 이다가 서 있었다. 감자 껍질 냄새가 났다.

"열하나가 고집을 부려."

"뭐?"

아이는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다. 두 줄, 세 줄, 네 줄, 남는 단추, 버려진 병사.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분명했는데, 입으로 나오는 길은 한 사람씩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문 같았다. 단어들이 서로 먼저 나가려다 문간에 끼었다.

결국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다.

"열하나는…… 친구가 없어."

이다는 단추를 내려다보고, 동생을 내려다보고, 아버지의 열린 서랍을 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

"너 그거 열었어? 엄마한테 이를 거야."

"열려 있었어."

"그건 엄마한테 설명해."

이다가 돌아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

아버지는 모자를 벗기도 전에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장례에서 돌아오는 길에 단넨베르크의 우편소에 들러 받아온 것이었다. 여름부터 신문은 늘 두꺼웠다. 파리에서는 사흘 만에 왕이 바뀌었다고 했고, 벨기에에서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나와 거리에 모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멀지 않은 브라운슈바이크에서 군중이 공작의 성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이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장례를 치를 때보다 굳어 있었다.

베른하르트는 신문을 좋아했다. 글자는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신문에는 언제나 숫자가 있었다. 날짜, 쪽수, 호밀 값, 그리고 사람의 수. 몇 명이 모였고, 몇 명이 다쳤고, 몇 명이 잡혀갔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다가 그런 숫자가 나오면 꼭 한 번 멈췄다. 아이는 아버지가 어디서 멈추는지를 보고 어디에 사람의 수가 있는지 알았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또 무슨 일이에요?"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도망쳤소."

"우리랑 상관없는 공작이에요."

"상관없는 일은 대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지."

그때 이다가 나선 것은 정의감 때문이었는지, 동생을 도울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이다 자신도 알지 못했다.

"아빠, 베른하르트가 아빠 서랍 열었어."

신문이 내려갔다.

아버지는 서재로 걸어갔다. 말을 하지 않았다. 구두 소리만 똑같은 간격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베른하르트는 그 간격을 센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것이 다섯 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섯 번 만에 아버지가 문간에 섰다.

바닥에는 단추 열한 개가 한 줄로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변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베른하르트는 아버지가 화낼 때의 얼굴을 알았다. 이것은 다른 얼굴이었다. 더 멀리 있는 얼굴이었다. 서재가 아니라 어느 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단추를 하나씩 주웠다. 하나, 둘, 셋. 열한 개에서 손이 멈췄다.

"하나는."

"침대 밑에요."

아버지는 침대 밑을 보지 않았다. 열한 개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아빠."

"응."

"아빠 군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보았다. 한참 보았다.

"그랬다."

"누구랑 싸웠어요?"

"프랑스 군대와."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겼다는 말은 네 살에게도 분명한 말이었다. 이기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자랑해도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 왜 단추를 서랍 맨 아래에 둔 걸까.

"그럼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기 전에 상자를 서랍에 넣고, 모직으로 덮고, 서랍을 끝까지 닫았다.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베른하르트."

"네."

"이긴 쪽도 사람을 잃는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을 물었다.

"몇 명이요?"

아버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아이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 침묵을 떠올리게 된다.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답이 너무 커서 입으로 나오지 못하는 침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역시 평생 그런 침묵을 여러 번 갖게 된다는 것을.

"아무도 다 세지 못했단다."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하고 서재를 나갔다. 문간에서 이다가 비켜서지 않아 둘은 부딪히기 직전까지 갔다. 아버지가 멈췄고, 이다도 멈췄다.

"이다."

"네."

"감자 껍질은 몇 개였느냐."

이다는 동생을 고자질로 얻을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서른 개요?"

"서른 개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세어 오너라."

이다는 여섯 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자질이란 것이 수학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

그날 밤 아이는 잠들지 못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침대에서 내려와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먼지와 어둠 속에서 손가락이 차갑고 단단한 것에 닿았다.

단추였다.

아이는 단추를 돌려놓으려고 서재 문 앞까지 갔다. 문은 닫혀 있었다. 문틈으로 촛불빛이 새어 나왔다. 안에서 아버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설교를 쓰고 있지 않았다. 설교를 쓸 때는 펜 소리가 났다. 지금은 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아이는 노크하지 않았다.

노크를 하면 아버지가 문을 열 것이고, 문을 열면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었다. 아까 서재 바닥에서 본 그 먼 얼굴을. 아이는 그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단추를 돌려주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방으로 돌아와 단추를 베개 밑에 넣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세었다.

하나.

하나는 줄을 설 필요가 없었다. 한 줄도, 두 줄도, 남는 것도 없었다. 그것은 그냥 하나였다.

아이는 하나를 꼭 쥐고 잠들었다.

이틀 뒤, 아버지는 양철 상자의 단추를 다시 세어보고 열한 개라는 것을 확인했다.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넓은 손으로 자기 얼굴을 한 번 쓸어내리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단추는 그 뒤로 삼십육 년 동안 한 번도 열두 개가 되지 않았다.

4화

또 해 주세요

목사의 일 중에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일이 있다.

프리드리히는 그 일에 익숙했다. 해마다 성탄이 오면 같은 말구유를 했고, 부활절이 오면 같은 무덤을 이야기했다. 교인들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졸았고, 졸다가도 어느 대목에서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같은 이야기는 사람을 재우기도 하고 깨우기도 했다.

그러나 다섯 살짜리는 교인이 아니었다.

"또 해 주세요."

"어제 했다."

"그러니까요."

1831년 봄, 브레젤렌츠의 밤.

아이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반짝였다. 프리드리히는 그 눈을 보며 난감했다. 낮에는 성경 이야기에도 하품을 하던 아이가, 밤만 되면 폴란드를 조른다.

그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은 지난 겨울이었다. 신문에 바르샤바의 봉기 소식이 실렸고, 아이가 그게 뭐냐고 물었다. 프리드리히는 대답하려면 오래전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부터 했다. 그것이 실수였다.

하나의 나라가 있었고, 이웃에 큰 나라 셋이 있었다. 큰 나라들은 그 나라를 조금씩 나눠 가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에 그 나라는 지도에서 없어졌다.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나라는

없어졌다. 모자를 쓴 장군이 싸웠고, 졌고, 멀리 갔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의 손자들이 다시 일어났다.

아이는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울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당황했다. 자기 아들이 우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배가 고파서, 넘어져서, 이다가 빵을 빼앗아서. 그러나 여기서 천 리도 넘게 떨어진 나라 때문에 우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다섯 살배기가 천 리라는 거리를 아는지도 몰랐다.

"왜 우느냐."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프리드리히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 주마."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다.

그날부터 목사관의 밤에는 순서가 하나 늘었다. 기도, 이불, 폴란드. 기도를 빼먹은 날은 있어도 폴란드를 빼먹은 날은 없었다. 열흘째 되던 밤 프리드리히는 샤를로테에게, 하나님께 저렇게 성실한 교인이 있다면 목사는 할 일이 없겠다고 말했다. 샤를로테는 그것이 칭찬인지 불평인지 묻지 않았다.

*

스무 번째 밤이 되자 프리드리히는 요령을 피우기 시작했다.

"하나의 나라가 있었고, 세 나라가 나눠 가졌고, 장군이 싸웠고, 졌다. 끝."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장군이 나오기 전에 비가 왔어요."

"비."

"열일곱 번째 밤에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장군이 대포를 못 끌고 갔다고 했어요. 근데 열여덟 번째 밤부터는 비 얘기를 안 하셨어요."

프리드리히는 열일곱 번째 밤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마 밖에 비가 오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피곤하면 창밖의 것을 이야기에 넣는다.

"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비가 오면 대포를 못 끌고 가요. 대포를 못 끌고 가면 져요."

"……."

"어제는 장군이 셋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장군이라고 하셨어요."

문밖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나서 프리드리히가 돌아보았다. 샤를로테가 빨래 바구니를 든 채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미 세 번째 지나가는 것이었다.

"부인."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장군이 셋이든 하나든."

그날 밤 프리드리히는 열일곱 번째 밤의 비와 열여덟 번째 밤의 장군 세 명을 모두 넣어 이야기를 다시 했다. 아이는 만족하며 잠들었고, 그는 만족하지 못한 채 서재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설교 원고 옆에 작은 종이를 한 장 둔 채로 서재에서 나왔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폴란드. 비(17). 장군 셋(18). 대포. 겨울 무렵(9). 말 여섯 마리(아이가 추가함, 21).'

해방전쟁의 중위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위한 작전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전쟁 때 그는 지도를 보는 쪽이었지 그리는 쪽이 아니었다. 그리는 쪽이 이렇게 고된 줄 알았다면, 그때 지도를 그리던 장교에게 빵 한 조각쯤은 나눠 주었을 것이다.

*

이다는 이 모든 것이 불만이었다.

"왜 맨날 폴란드야? 나는 공주 얘기가 좋아."

"공주 얘기는 끝나잖아."

"폴란드 얘기도 끝났잖아. 맨날 져."

아이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로 말했다.

"공주 얘기는 항상 같은 데서 끝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폴란드 얘기는 아직 안 끝났어."

"져서 끝났다며."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있으면 안 끝난 거야."

이다는 동생을 보았다. 동생의 논리는 이상했지만 틀린 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다는 틀린 데를 찾을 수 없는 말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썼다.

"너 이상해."

"응."

"인정하지 마. 그럼 더 이상해."

그날 밤 이다는 복수를 했다. 아버지보다 먼저 동생의 침대에 와 앉아 공주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옛날에 공주가 있었고, 왕자가 왔고,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다. 끝.

"비는?"

"비 안 와."

"공주는 몇 살이었어?"

"몰라. 열여섯."

"어제는 열다섯이라고 했잖아."

이다는 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동생의 얼굴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정말로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이다를 더 화나게 했다.

"너는 공주 얘기도 폴란드로 만들어."

복도에서 빨래 바구니가 네 번째로 지나갔다.

*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이야기는 몇 달 동안 계속됐다. 아버지의 종이 한 장은 두 장이 되었고, 두 장은 작은 공책이 되었다. 아버지가 같은 대목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아이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새로운 질문을 하나씩 더했다.

프리드리히는 그 공책을 설교 원고와 같은 서랍에 두지 않았다. 설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공책은 다섯 살에게 드리는 것이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까다로운 청중인지 그는 가끔 헷갈렸다. 설교에서 한 말을 다음 주에 조금 바꿔도 교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공책에서 한 말을 다음 날 조금 바꾸면 반드시 들켰다.

"저 애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 하겠소."

어느 저녁 그가 털어놓자 샤를로테가 대답했다.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력이 문제예요, 당신은."

장군은 몇 살이었어요? 그 나라는 얼마나 컸어요? 우리 나라보다 컸어요? 그럼 왜 졌어요? 큰 나라도 질 수 있어요? 우리 나라도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에서 프리드리히는 오래 멈췄다.

"하노버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영국이 있다."

"폴란드도 왕이 있었잖아요."

프리드리히는 아들의 이마를 두드렸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다.

아무도 그때는 몰랐다. 서른다섯 해 뒤 여름, 이 아이가 태어난 왕국이 전쟁에 지고 끝내 지도에서 지워지리라는 것을. 그 소식은 먼 남쪽 호숫가에 있던 그에게 늦은 우편으로 닿게 된다.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그는 끝까지, 나라가 없어져도 사람은 남는다는 다섯 살의 문장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였다.

*

1831년 가을, 단넨베르크 우편소에서 가져온 신문에 바르샤바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실렸다.

프리드리히는 그 신문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기다리자, 그는 침대 가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비(17). 장군 셋(18). 그는 첫 장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나의 나라가 있었고.

그런데 그날은 프리드리히가 먼저 졸았다.

하루 종일 교인 세 집을 돌았고, 바르샤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고, 복도의 난로는 따뜻했다. 장군이 두 번째 강을 건너는 대목에서 그의

목소리가 느려지더니, 멈췄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에서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장군은 말 여섯 마리를 버리고 걸어서 갔어. 겨울이었고, 눈이 왔어. 눈이 오면 발자국이 남아. 발자국이 남으면 적이 따라와. 그래서 장군은 강을 따라 갔어. 강에는 발자국이 안 남아……."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비도, 장군 셋도, 대포도, 말 여섯 마리도 다 있었다.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했던 모든 말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단 하나, 그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 끝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도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야."

아이는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다. 잠들었다.

프리드리히는 오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공책을 덮고,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 연필로 한 줄을 더 적었다.

'끝나지 않음(아이가 추가함).'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 침대 가에서 밤새 앉아 존 것을 보고, 아버지가 폴란드 이야기를 끝까지 해준 척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서 엄숙하게 말했다.

"어제 끝부분은 조금 달랐어요."

프리드리히는 커피 대신 마시던 볶은 보리차를 내려놓았다.

"어떻게 달랐느냐."

"끝에 새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맘에 들었느냐."

아이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건 매일 넣어 주세요."

샤를로테가 빵을 자르다 멈추고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웃고 있었다. 그녀가 결혼한 뒤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만 본 웃음이었다.

5화

지워진 나라

목사관에는 지도책이 한 권 있었다.

프리드리히가 학생 시절 산 것이었다. 표지는 닳았고, 몇몇 장은 빠져 있었고, 국경선은 나폴레옹 이전의 것이었다. 즉 그 지도책의 세상은 이미 없는 세상이었다.

그래도 아이에게는 충분했다.

지도책은 아이의 무릎보다 넓었다. 아이는 그것을 바닥에 펴 놓고 엎드려 보았다. 나라마다 색이 달랐다. 노랑, 분홍, 연두, 옅은 하늘색. 아이는 곧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다. 국경을 맞댄 두 나라는 한 번도 같은 색이 아니었다. 멀리 떨어진 나라끼리는 같은 색일 때가 있었지만, 붙어 있는 나라끼리는 절대로 아니었다. 그렇다면 색은 몇 가지면 모자라지 않을까. 아이는 세어 보다가, 나라가 너무 많아서 그만두었다. 그만둔 것을 잊지는 않았다.

"여기예요."

다섯 살의 손가락이 동쪽의 넓은 땅을 짚었다. 그 위에는 아직 그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도책이 그만큼 오래된 것이었다.

"그렇다."

"근데 여기엔 있잖아요."

"이 지도가 오래됐기 때문이다."

"그럼 새 지도에는 없어요?"

"없다."

아이는 지도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했다.

"그럼 새 지도는 누가 그려요?"

프리드리히는 지도책을 덮으려다 말았다. 다섯 살이 할 질문이 아니었다. 아니, 다섯 살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어른들은 지도를 누가 그리는지 묻지 않는다. 그냥 믿는다.

*

프리드리히는 그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다. 지도는 측량하는 사람들이 그린다. 산에 올라가 각도를 재고, 삼각형을 이어 붙여 땅의 모양을 종이 위에 옮긴다. 하노버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괴팅겐의 가우스라는 교수가 왕의 명령을 받아 여러 해 동안 왕국을 재었다.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로 햇빛을 거울에 실어 보낸다고 했다. 수십 리 밖에서도 그 반짝임이 보이면, 그 빛을 향해 각도를 잰다. 프리드리히는 그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이는 그 대목에서 눈을 크게 떴다.

"해를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이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럼 국경도 그 사람이 그려요?"

"아니다. 측량하는 사람은 땅을 잰다. 국경은 왕들이 정한다."

"왕들은 땅을 재요?"

"아니."

"그럼 어떻게 정해요?"

프리드리히는 해방전쟁의 중위로서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국경은 대포가 닿는 곳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누군가 양보하는 곳까지 그어진다. 그러나

목사로서 그 답을 다섯 살에게 주고 싶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약속을 한다."

"폴란드도 약속했어요?"

"……안 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알아낸 얼굴이었다. 프리드리히는 그 얼굴이 조금 무서웠다.

그날 저녁 아이는 이다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라는 약속이야."

"무슨 약속?"

"선을 어디에 긋자는 약속."

이다는 감자를 깎다 말고 동생을 보았다.

"그럼 약속을 안 하면?"

"그럼 대포가 그어."

이다는 칼을 내려놓았다. 동생이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이 그랬다. 이다는 대포 대신 감자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너는 껍질 얇게 깎는 약속이나 지켜."

*

토요일 오후였다.

프리드리히는 주일 설교를 다 쓰고 원고를 책상 위에 둔 채 병든 교인을 보러 나갔다. 샤를로테는 빵을 굽고 있었고, 이다는 빌헬름에게 노래를 불러 주고 있었다. 노래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노래였다. "자라, 자라, 안 자면 누나가 혼낸다."

베른하르트는 서재에 있었다.

빌헬름은 그 노래를 듣고 자지 않았다. 대신 누나의 땋은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다는 노래의 가사를 바꿨다. "자라, 자라, 안 자면 누나가

머리를 잘라 버린다.” 빌헬름은 그제야 잠들었다. 협박이 통하는 동생이라는 것을 이다는 그날 처음 알았고, 그 지식을 평생 아껴 썼다.

아이는 지도책을 펼치고 그 나라의 모양을 따라 그리고 싶었다. 종이가 필요했다. 책상 위에 종이가 있었다. 한쪽 면에는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뒷면은 비어 있었다. 아이는 글씨가 있는 면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연필로 그 나라의 모양을 그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세 나라가 나눠 가진 선을 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선을 긋자 그 나라는 없어졌다.

아이는 그게 싫었다. 선을 지웠다. 지우개가 없어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질렀다. 선이 번졌다. 다시 그었다. 이번에는 다른 곳에. 세 나라가 조금씩만 가져가게. 그래도 가운데에 땅이 남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또 지웠다.

열 번을 그리고 열 번을 지우자 종이가 걸레처럼 일어났다. 침과 연필이 섞인 회색 얼룩이 종이 전체로 퍼져 있었다. 그리고 종이를 뒤집어 보았을 때, 아이는 숨을 멈췄다.

앞면의 글씨들이 번져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잉크였고, 잉크는 종이를 뚫고 뒤에서 침을 받아 번졌다. 문장들이 구름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하나님, 이웃, 사랑 같은 단어들만 겨우 보였다.

그것은 내일 아침의 설교였다.

*

프리드리히가 돌아온 것은 해가 진 뒤였다.

그는 책상 앞에 서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문간에 서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은 사과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다. 다만 사과하는 법을 몰랐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설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세 나라, 선, 지우기, 침, 새 선, 그리고 글씨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예의. 그러나 그것들은 이번에도 좁은 문간에 꽉 끼었다.

나온 것은 울음뿐이었다.

프리드리히는 아이를 보지 않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 있거라."

그 목소리가 화낸 목소리보다 무서웠다.

샤를로테가 복도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사정을 들었다. 그녀는 서재 문을 열고 남편을 봤다. 남편은 이미 새 종이를 꺼내 펜을 들고 있었다.

"프리드리히."

"새벽까지 쓰면 된다."

"그 애는 폴란드를 그리려고 했대요."

펜이 멈췄다.

"글씨 있는 쪽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게 예의라고."

프리드리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새 종이에 첫 줄을 썼다. 샤를로테는 문을 닫았다.

*

새벽 네 시, 아이는 눈을 떴다.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서재 문틈으로 촛불빛을 보았다.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새 설교를 다 써 놓은 채였다. 그리고 망가진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불에 넣지 않았다.

촛불에 비춰 보았다. 번진 선들, 지워진 선들, 가운데에 조금 남은 땅. 아버지는 그것을 오래 보았다. 그러고 네 번 접어서, 단추 상자가 있는 맨

아래 서랍에 넣었다.

아이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다.

아이는 발소리를 내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손가락을 펴보았다. 침과 연필 냄새가 아직 났다. 아이는 그 손가락으로 이불 위에 선을 하나 그었다. 이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이는 안심하고 눈을 감았다. 지워지지 않는 선은 무섭고, 남지 않는 선은 편했다. 어느 쪽이 더 옳은 선인지는 아직 몰랐다.

*

주일, 브레젤렌츠 교회.

맨 앞줄에 앉은 아이는 설교 내내 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원고를 넘기는 손. 넘길 때마다 아이는 그 종이가 어젯밤의 새 종이인지 확인했다. 모두 새 종이였다. 얼룩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숨을 참았다. 일곱 번 참았고, 일곱 번 다 무사했다.

설교는 여느 때보다 짧았다. 교인들은 목사가 피곤해 보인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설교의 끝에서 목사는 미리 쓴 원고에 없는 말을 하나 더했다. 베른하르트는 그것이 원고에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종이를 보지 않고 아이를 보며 말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은 선은 바뀝니다. 왕이 그은 선도, 우리가 그은 선도. 그러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어느 선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얼룩이 묻어도, 번져도, 지워져도."

교인들은 그 말의 얼룩이 무엇인지 몰랐다. 샤를로테는 알았다. 이다는 몰랐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알아냈다. 그리고 동생의 옆구리를 찔렀다. 자랑해도 된다는 뜻인지, 반성하라는 뜻인지는 이다 자신도 정하지 못했다.

예배가 끝난 뒤 교회 마당에서 베른하르트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다. 하루 종일 준비한 말이 있었다. 세 나라와 선과 예의에 관한 긴 설명이었다.

아이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설명 대신 다른 말이 나왔다.

"그 종이…… 왜 안 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들이 기억하는 한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런 종이는 다시는 못 쓴다. 그러니 두고 보는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다가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다.

"나도 종이에 그림 그리면 아빠가 서랍에 넣어 줘?"

"설교 원고에 그리면."

아버지가 말했다. 완전히 무표정이었다. 이다는 그것이 농담인지 아닌지 사흘 동안 고민했고, 결국 실험하지 않기로 했다. 이다는 동생과 달리 그만두는 법을 알았다.

아이는 그날 아버지가 한 말의 뜻을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모르는 비밀 하나를 갖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종이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구겨지고, 번지고, 틀린 선이 가득한 종이일수록 더 그랬다. 평생 그는 그런 종이를 접고, 겹치고, 날짜를 적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어느 날, 겹쳐 놓은 종이들 사이에서 어떤 함수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찾게 된다.